

[별첨 1] Working Paper 관련 연구주제

□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이른바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경제의 잠재적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이제는 제로성장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성장률 하락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악화를 넘어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과 민생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충격과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의 흐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총수요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성장 둔화에 대응해 왔으나, 장기성장률은 생산성·인구구조·산업경쟁력 등 공급 측면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성장추세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금융불안,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 다양한 부작용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경기부양에 의존하는 ‘가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기반으로 장기성장률을 제고하는 ‘진짜성장’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KDI 연구 추진 방향

현시점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장기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가짜성장’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구조적 성장능력을 제고하는 ‘진짜성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혁신과 기술혁신, 교육혁신, 사회제도 혁신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개별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적 한국경제 혁신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 촉진형 제도개혁 연구를 확대하고, ‘모방에서 창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및 시장구조, 노동시장, 교육체계,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플랫폼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기업의 성공적인 스케일업 지원체계 구축,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AI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변화와 유효수요 부족 문제 등에 대한 과학적 정책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AI를 성장추락의 위협요인이 아닌 성장반전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민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적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양극화 완화,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연구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제고해야 합니다.